

여수박람회장 사후활용 '밀실용역' 논란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장 사후활용 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해 '밀실용역'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4일 '여수엑스포 시민포럼'(이하 시민포럼)은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7일 서울에서 열린 박람회장 사후활용 최종 보고회에 지역 주민을 배제한 것은 독선적으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포럼은 "사후활용은 성공 박람회를 평가하는 핵심요소인 만큼 지역민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며 "향후 계획수립 과정에서 조직위원회의 독단적인 계획 수립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민포럼은 현재 사후활용 계획은 영구시설을 최소화하고 관련 시설을 '매각 내지는 위탁'해 국가재정을 회수한다는 방향에 맞춰져 있다고 지적하고 박람회 정신과 철학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턱없이 못 미치고

시민포럼 "주민 배제 최종보고회" 비난

조직위 "시민 의견 충분히 반영 했다"

인다는 것이다.

전상국 시민포럼 사후활용분과 위원장은 이날 "기반 조성을 제대로 해야 투자자가 오는데 이게 안되니까 지구 사후활용도 축소로 가는 것 아니냐"며 "또한 세계에 약속한 여수 선언과 여수프로젝트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예 없어 부실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창진 전남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최근 사후활용 용역 과정을 보면 주민 몰래 박람회 부지를 상업용지로 만들어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우려스럽다"며 "박람회 마스터플랜 이후 기본계획과 실행계획까지 나왔지만 계속 축소 움직임만 보이는 현상화를 하고 박람회 정신과 철학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턱없이 못 미치고

적인 논의를 거쳐 정부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박람회 사후활용 실행 계획 핵심 방향은 '신해양 녹색경제의 신성장동력 거점조성'에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 여수시는 지난달 27일 사후활용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여수 도시 장기발전 비전과 맞게 사후활용 용역이 수립되길 바란다는 의사를 건의한 상태다.

여수시 관계자는 "중간보고회에서 지적된 내용 대부분이 수정되거나 반영돼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지나친 우려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2 여수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중장기 실행계획 수립 용역'은 (주)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이 지난해 7월 6일부터 사업에 착수해 이달 중에 최종 보고서를 납품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영어경시대회 입상자 미국연수

고흥군 주최 영어경시대회에서 입상한 초·중·고등학생과 교사들은 최근 8박9일 동안 미국 UCLA·스탠퍼드대, 그랜드 캐년 등을 탐방하는 미국 연수를 다녀왔다. 군은 3년 전부터 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생 영어경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호남석화 공장 증설 5200억 투자

2012년까지 에틸렌 등 생산규모 국내 최대로

호남석유화학이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여수 NC공장 2차 증설과 계열 공장 증설 등에 5천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호남석유화학은 3일 이사회를 열어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제조원가와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고 계열공장(HDPE, PP) 제품증산을 통해 매출, 수익을 증대시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투자금은 자기자본 대비 14.5% 규모로 올해부터 2012년 10월까지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호남석화는 우선 여수 나프타분해(NCC) 공장을 증설, 연간 에틸렌 생산량을 25만 톤 늘려 총 100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호남석화는 연산 100만 톤 규모의 대산(총합) NCC도 보유하고 있어 증설이 끝나면 국내 최대 규모의 에틸렌 생산업체(연산 200만 톤)로 올라선다. 그 동안은 여천 NCC가 가장 많은 에틸렌(연간 187만 톤 규모)을 생산해왔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에틸렌은 폴리에틸렌(PE), 에틸렌글리콜(EG), 스티렌모노머(SM), 폴리염화비닐(PVC), 아세트알데히드 등 에틸렌 계열 제품의 원료로 석유화학공업의 대표적인 기초 유분이다.

호남석화는 또 PE와 폴리프로필렌(PP) 공장을 증설한다. PE는 연간 생산량을 25만 톤, PP는 20만 톤을 늘

릴 계획이다. 증설이 완료되면 PE는 총 63만 톤, PP는 여수공장(60만 톤)과 대산공장(50만 톤)을 합해 총 110만 톤으로 생산규모가 확대된다. 모두가 국내 최대 수준이다.

호남석화는 현재 여수에 연산 13만 톤 규모의 부타디엔(BD) 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부타디엔은 합성고무 원료로 타이어를 만드는 데 쓰인다.

호남석화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에 들어가면 2012년에 증설이 끝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호남석화는 지난해 매출 5조 9698억 원, 영업이익 7천176억 원, 당기순이익 7천901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2.7%, 영업이익은 무려 694.7%나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흑자로 전환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여수시, 인공위성 이용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여수지역 산간 오지나 자연마을의 토지민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여수시는 "인공위성을 활용해 정확한 토지등록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 토지경계분쟁 해소를 위해 자연마을 단위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기준점 설치 사업을 추진중이다"고 4일 밝혔다.

산간 오지나 시골 자연마을의 경우 영구적인 지적측량 기준점이 설치되지 않아 인근 기준점을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토지민원 발생뿐만 아니라 측량자마다 다른 측량결과를 제시해 소유자간 빈번한 경계다툼 등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억7천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277여 개의 자연마을마다 각각 1점 또는 2점의 지적측량환경 고도화 기준점을 설치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천18점을 설치했으며 올해에는 509점을 설치한다.

여수시는 지적측량이 정확하게 결정돼 공신력 있는 측량성과뿐 아니라 각종 지역개발 사업때 측량을 적기에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운영과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사업비 절감 효과도 크게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구례 압화대전에 공모하세요"

郡, 국내·외 풍경 등 4개 분야 창작품 공모



우리나라 압화(壓花) 예술인의 최고 등용문인 '대한민국 압화대전'이 올해 9번째로 구례에서 열린다. 구례군은 국내와 국제 공모전으로 나눠 풍경, 정물, 디자인, 공예 등 4개 분야의 압화 창작품을 공모한다.

공모자격에는 제한이 없고, 규격은 풍경, 정물, 디자인분야는 액자 12호(85×70cm), 공예는 90×90×100cm이며, 유리대용 아크릴 사용이 가능하고, 1인당 2점 이내

출품할 수 있다. 국제작품 공모는 오는 12일까지, 국내공모전은 다음달 2일부터 12일까지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야생화연연구소)에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 발표는 오는 3월 25일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gurye.net)와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시상식은 오는 4월 17일 구례군 농업기술센터내 야생화 압화전시관에서 열린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lk5826@

지자체 보건사업 평가

곡성군 2년연속 '최우수'

곡성군은 '제 1회 전국 지자체 보건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은 최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전국 시도, 시군 보건소장 등 보건공무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2천4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노인전문병원 개원과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22개 마을 '건강 팔팔마을' 육성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시에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세계한상대회' 여수 유치위 4월 구성

2012년 개최될 예정인 '제11차 세계한상대회' 여수 유치를 위한 여수시 유치위원회가 빠르면 오는 4월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한상대회 유치 실무추진단(단장 임재완 전남대 교수)은 지난 3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세계한상대회 여수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한상대회 유치를 위한 2010년도 사업계획 보고와 세계 한상대회 유치위원회 구성방안

등에 대한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한상대회 유치위원회는 학계, 언론계, 경제단체, 기관 등 다양한 계층으로 위원을 구성하되 올 4월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대회 유치신청은 2011년 2월이며 같은 해 4~6월에 개최지가 결정된다. 올해 대회는 대구·경북에서 10월 중 3일간 행사가 열린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지난해 2012년 개최되는 '제11차 세계 한상대회'를 2012년 세계박람회가 개최되는 여수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곡성 구례 보성

본 부 장 김동호
김계중 국장
주각중 부국장
박양규 부장
이진택 부장
박영진 차장
김은종 기자
선상근 기자
김청수 기자
박성태 기자
하태민 기자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구분	신입생모집(1기)	중·고급생모집(1기)	중·고급생모집(2기)
시각	2010. 2. 11(화)~3. 1(목)	2010. 2. 11(화)~3. 1(목)	2010. 2. 11(화)~3. 1(목)
지역	2010. 2. 11(화)~3. 1(목)	2010. 2. 11(화)~3. 1(목)	2010. 2. 11(화)~3. 1(목)
수강료	200,000	200,000	200,000
수강신청	2010. 1. 25(화)~2. 1(목)	2010. 1. 25(화)~2. 1(목)	2010. 1. 25(화)~2. 1(목)
수강신청처	한문지도사자격연수원	한문지도사자격연수원	한문지도사자격연수원
문의처	한문지도사자격연수원	한문지도사자격연수원	한문지도사자격연수원

무등산 문화행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량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기 관리하겠습니까?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35